



부로일러업에 성공하려면 숙련된 관리기술이 필요하다.

김 호 섭
<천 호 부 화 장>

부로일러의 육종과 영양학은 과거 10년 동안에 눈부신 발전을 하여 왔다. 세계 부로일러 리더 멤버의 하나인 화란 유리브리드 육종회사의 예로 든다면 최근 공식 능력검정에서 42일령에 1529그램, 49일령에 1889그램의 성장기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율은 10년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정도의 경이적인 발전인 것이다. 이렇게 개량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양관리기술과 위생관리 수준이 병행하여 개선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양계장에서의 관리수준은 별로 향상되고 있지 못하다. 부로일러 유전능력을 발휘시키지 못하는 또하나 큰 요인은 발전된 영양학이 사료제조에 충분히 이용되고 있지 못하는데 있다. 그러면 부로일러의 성장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질병 예방에서의 잘못이다.

으면 계사와 계사간의 평균교차감염 공기전염 질병의 신속한 전파를 피할 수 없게되어 육추를 계속할 수록 생산효율을 저하하게 된다. 풍향 및 작업과정을 고려하여 계사배열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한번 사용된 계사는

완전히 소독한 후에 재입추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 계군에서 문제가 된 질병이 다음 계군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다. 육추사를 건축할때에 내부 전체를 물로 닦아 낼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육추사 소독은 천정면지 벽면지 말라붙은 닭똥 등을 물로 닦아내야 하고 다음에 내부 전면을 소독약으로 목욕 시켜야 한다. 이런기본적인 위생표준이 아직도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부로일러의 질병예방을 위해서는

육추사의 완전격리 올인 올아웃 수용방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적인 위생관리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위생관리를 무시하면서 관리의 결함을 약품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기본적인 위생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계사를 짓기 이전에 계사 위치 선정계획에서부터 고려되어야 가능하다. 일단육추사 육성사를 밀집해서 건축하여 놓

필수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부로일러 병아리는 항상 같은 부화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농장을 채우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유는 각 부화장에 따라 보균한 질병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부화장에 따라 특정질병에 따른 모체이행 면역력도 다르다. 여러 부화장의 병아리를 쓰면 부화장으로 부터 오는 질병의 종류는 더욱 많아지고 자기 상대방 부화장

질병에 대한 면역 항체가 낮아 질병발생의 위험은 증가한다. 각기 다른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갖어오는 간단한 잘못이 더욱 개량된 유전능력을 완전히 발휘 시키지 못하게 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사육가들은 인식해야 한다.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현재 부로일러 사육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백신접종후에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약한 형태(콧물이 약간 나는)의 호흡기병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스트레스가 중첩되면 호흡기병(기낭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백신접종 프로그램은 어떤 공식을 그대로 채택하여야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부터 실시해오던 접종에 대한 경험도 살려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접종은 건강한 닭에게만 실시하므로써 최소의 부작용과 최대의 면역력을 얻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접종후 3일부터 항생물질을 고농도로 3일간 투여하는 방법이 권장되어 있고 접종스트레스를 받고있는 닭은 계사기온을 좀 높이고 단백질과 미량영양소 함량이 높은 사료를 먹으면 성장부진 해소에 도움이 된다.

평사에서 기르고 있는 부로일러

에 있어서는 내부기생충이 큰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외부에서 신던 신발을 육추실에 그대로 신고 들어갈때, 병아리를 계사주위에 방사할때, 육추실이 완전히 소독이 되지 않았을때, 더운 여름철일때, 바닥이 습할때는 회충과 복시듬으로 인한 피해가 의외로 커질 수 있다. 이들질병은 대개 5주령 이후부터 빈발하는 것이 보통이나 그 이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계군이 신경질적이 되어

서로 쪼는 악벽이 생기는 것도 부로일러 사육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심한 봄과 가을에 히스테리 증세가 심하다고 보고해온 연구자도 있고 사료 내에 칼로리 단백질의 균형이 맞지않거나, 메치오닌, 시스틴, 라이신, 트립토판 같은 아미노산이 부족했을때 즉 사료의 질이 나쁘면 히스테리 증세가 갑자기 발생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계사가 밝으면 닭의 활동이 예민하여진다. 닭은 많이 움직일 수록 에너지를 소모하여 사료를 낭비하는 셈이 된다. 부로일러 계사를 가급적 어둡게 하므로써 닭의 활동을 적게하고 카니발리즘도 방지 할수 있다. 점등면에서보면 처음 10일간은 60~100와트의 전구를 모이통 물통이 잘보이도록 달아주어야 하지만 10일이후 보터는 55와트 전구로 교체하여 점등해 주는 것이 초기 카니발리즘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다. 한때는 부로일러에 디비킹을 권장하기도 했으나 요즈음은 사료효율부진 때문에 권장되지 않고 있다.

계사 적온을 유지하지 않고는

좋은 성장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 부로일러 육성기록부를 검토해보면 가을보다 겨울에는 육계 1키로그램 성장에 소요되는 사료가 10% 더 드는 것을 볼수있다. 이것은 겨울추위로 부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료를 더먹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름철에는 계사고온 때문에 식욕이 부족하여 성장이 늦고 닭의 활력도 많이 떨어지며 우도발생이 늦다.

1. 계사내의 온도 2. 수용밀도 3. 환기량 4. 계사바닥 상태는 상호연관을 갖고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 4가지 요소를 잘 조절하는 것이 부로일러 사육의 기술이라 할 수있다.

(1) 계사내의 온도: 2~3일간은 32°C 이상을 유지하고 그 이후부터는 온도를 빨리 내려주는 것이 식육종진 성장증진에 도움이 된다. 육추초기에 이정도 온도 관리는 3주이

후 너무 온도를 낮게 유지하거나 높게 유지하면 성장에 큰 영향을 주게된다. 가장 최적온도는 16°C~21°C이다. 16°C이하 12°C까지는 성장은 지장이 없으나 사료효율 부진이 온다. 21°C 이상에서는 역시 성장 부진이 온다. 계사기온이 높을 수록 습도공급에 유의한다. 건조하면 먼지를 증가시키고 호흡기관을 자극하여 호흡기병의 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

(2) **사육밀도** : 사육밀도 자체가 성장율과 사료효율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사육밀도를 높였을때 성장율이 우수하게 나타나는 시점에도 많다. 사육 밀도가 높아지므로서 오히려 계사온도를 높이거나 건조한 바닥을 적당히 습하게 해주어 육성환경을 개선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겨울철에 사육밀도를 좀 높게 해주는 것은 계사온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 즉 밀사 그 자체가 닭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보다는 밀사가 갖어오는 나쁜환경이 닭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밀사현상을 줄이려면 샷샷 주위의 울타리를 7일령후에 철거하고 모이통 물통을 재배열하여 병아리들이 계사전면에 펼쳐 놓도록 해준다. 계사 벽 주위에 더욱 밝은 불을 켜주는것도 닭을 퍼져 놀게하는데 도움이 된다. 계사 바닥을 스프레트(스노코) 바닥으로 하고 환기량을 늘릴 수록 수용 밀도를 높일수 있다.

(3) **환기량** : 부로일러 계사의 대부분은 적절한 환기시설이 되어있지 못하다. 더운 여름철에는 습도배출 온도저하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환기가 필요하게 된다. 권장되는 환기용량은 부로일러체중 16킬로그램당 매분 1m³이다. 환기능력 25%를 여분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이상적이다.

(4) **바닥상태** : 바닥 깔짚 상태는 수용밀도 계사기온 환기량 깔짚보충으로 조절하여 항상 알맞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바닥상태가 건조하면 호흡기병을 초래하기 쉽고 반대로 습하면 콕시듐 감염을 증가시켜 성장율을 크게 저하시킨다. 부로일러 육성에 있어 빠다리를 사용하면 소화기성 질병의 피해를 방지하여 생산코스트 절감에 도움이 된다.

협성가축약품공사

○수의사가 질병을 상담하고 약사가 판매하는 가축약품 총판

○가축예방약, 치료제, 사료첨가제, 소독약 기타 국내외

가축약품 일체

○지방주둔 환영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654
청량리 오스카극장앞
한일은행 청량리지점 옆

주간 (97)8779 야간 (96)9231

